
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, 나와 긴급회의 개최

-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논의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1일(금) 오후 2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,
 -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”라면서, “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장원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	문수빈 (044-201-4150)
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부병 (044-201-4533)